

#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전북자치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원보호위원회 설치... 이달 1일자로 담당 인력 배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일부터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역할은 교육지원청 지역교원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지역교원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피해 교원의 보호와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도 심의한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각 교육지원청은 위원회별로 10~50명 규모의 지역교원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교원·전문가·학부모·변호사·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특히 지역교원보호위원회 원활한 이관을 위해 3월 1일자로 담당 인력 20

명을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했다.

각급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교원보호위원회 이관 작업을 2월부터 세 차례의 담당자 연수,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학교장 연수 등 교원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대비를 진행해 왔다. 4월 2일에는 지역교원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교원보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적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해설 및 쟁점사항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교원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업무경감에 더욱 노력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호텔외식조리학과 신입생 유니폼 착복식 개최

우석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는 27일 본관 5층 시정각실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 유니폼 착복 및 배지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노준 총장과 이보순 식품과학대학장, 박기홍 호텔외식조리학과장, 학과 교수진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신입생 35명을 대표해 한주희 학생은 호텔외식조리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선서했다.

박노준 총장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차별화 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가는 과정에서 지원과 도움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지수(호텔외식조리학과 4년) 학생 외 10명이 스타셰프로 선정돼 박노준 총장으로부터 배지와 부상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가 지난 8개월 동안 전주 영생경로당 공간 개선을 추진한 가운데, 27일 열린 영생경로당 입주식에서 양오봉 전북대 총장, 우범기 전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역 취약공간 개선 '호평'

###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지자체 등 협업 영생경로당 공간 개선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학과장 최병숙)가 지난 8개월 동안 지역사회 노후 공간 개선 사업을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 공간복지 실현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주 영생경로당의 공간개선 사업을 추진했고, 학생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올 3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북대 주거환경학과가 주관하고, 다나함 어소시에이트가 공사비 지원과 전체 사업 지원 및 컨설팅에 참여하고, 전주시도 지역 자원 연계와 공사비 후원했다. 라이온스 클럽 역시 시공 인력 지원과 시공 관련 봉사 등을 지원했다.

다나함 어소시에이트에서 공모한 공간복지 실현 프로젝트에 선정된 영생경로당은 1960년대 가동식 목구조로 준공된 노후 건물이다.

27일 주거환경학과에 따르면 외부 답장 절거와 미관 개선 작업, 외부 화

장실 개선, 노인들을 위한 현관문 문턱제거, 유희공간 누수개선 및 외부 보조 통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를 대대적으로 펼쳤다.

또한 어르신 행태를 고려한 평상 설치, 주방의 싱크대 확장 및 식탁 배치를 했고, 실내에 창호와 바닥 및 벽지 마감재를 교체해 쾌적한 공간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입주를 축하하고,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관 간 지속적 협력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날 오후 2시 영생경로당에서 입주식을 가졌다.

이날 입주식에는 양오봉 총장과 우범기 전주시장, 유한경 다나함 어소시에이트 대표이사, 광적관 라이온스 클럽 회장 등이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사업 참여한 학생 대표(황창현, 주거환경학과 3년)가 공간개선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장미선 교수가 개선된 경로당 현장을 돌아보며 소개

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주거환경학과는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함께 3개 취약 가구의 주거공간을 개선했다. 학생들은 여름방학부터 2학기 중에도 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전공 분야 전문지식을 현장에서 습득하고,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재능기부를 펼쳤다.

이 프로젝트는 취약계층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과 공간 안전의 확보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대학과 지자체, 기업 등이 힘을 모아 지역의 취약 공간 개선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상생모델로 호평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장명훈 학생은 "내가 하고 싶은 설계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한 설계를 해보니 신경을 부분이 더 많아 어려웠다"며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고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병숙 학과장은 "이 사업은 대학과 지역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업과 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모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간복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군산기계공고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오후 7시부터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에서 교직원과 기숙사 거주 학생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야간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군산소방서지곡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진행, 폼피차와 구급차 등을 활용, 실제와 같은 상황 연출로 훈련의 긴장감과 효과성을 높였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군산기계공고는 2023년 재난 안전시설 확충 시범사업 학교로 선정, 기숙사 3관 각 층 복도에 화재 대피용 미끄럼대가 설치돼 있어 학생들은 이를 활용해 신속하게 대피했다. 또한, 지난해 말 학교 기숙사에 보급한 산소 발생 화재 대피용 생명 구조 타올 사용법을 익히고, 대피시 활용하도록 했다.

피난 대피를 마친 학생들은 건물 앞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직접 불을 끄며 사용법을 익히고, 화재 현장 대피 방법에 대한 교육도 들었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 청각장애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보조공학기기 지원·문자통역서비스 등 편의지원 지속 찾아가는 입학 적응 교육 올 첫 시행... 통합학급 적응 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청각장애학생은 특수학교 10명, 특수학급 32명, 일반학급 67명 등 총 109명이다.

도내 청각장애학생 10명중 6명 가량은 일반학교에 배치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적 편의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청각장애 거점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FM송수신기를 비롯한 개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청각장애 교육 편의를 위한 문자통역서비스 지원,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청각장애 이해 교육, 교사 및 학부모 연수, 가

족과 함께하는 수어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말에는 초등학교 입학 앞둔 예비 신입생의 학교 적응 및 청각장애 특성을 반영한 교육지원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입학 적응 교육' 도처를 시행했다.

학생과 보호자, 입학 예정 학교 교사 및 관리자, 담당장학사 및 거점센터 특수교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청각장애학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입학 초부터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학 적응 교육은 학교와 청각장애학생 담임교사의 만족도가 높았다. 보청기 및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 적응을 위한 자리 배치 등 지원사항을 사

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2일에는 청각장애학생 담임교원 및 관리자, 교육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열어 청각장애 이해 및 수어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청각장애학생 교육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다음 달 5일에는 청각장애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이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대선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도내 청각장애학생 대부분은 일반학교에서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 등을 착용하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때로는 FM송수신기나 문자번환 서비스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어를 배워서 가쪽이나 친구들과 더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을 10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맞는 지원을 더욱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학교도서관 운영 길라잡이 개발

### 전북자치도교육청, 일정보 열 업무 매뉴얼 등 담겨 28일부터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연수 추진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운영 길라잡이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서교사와 일반직 사서로 구성된 학교도서관현장지원단이 개발한 이 길라잡이에는 △학교도서관의 역할 △2024년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 △학교도서관 일정보 열 업무 매뉴얼 등이 담겼다.

특히 학교도서관 일정보 열 업무 매뉴얼에는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수립부터 자료구입·등록, 장서 점검·폐기, 자원봉사자 구성과 예산편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수록했다.

3월부터 고도화 개편된 17개 시·도 통합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독서로DLS' 이용 매뉴얼도 포함해 학년초 학교도서관 시스템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새롭게 개발

한 길라잡이를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28일에는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일반직 사서 미배치지역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등 일반직 사서가 배치된 곳은 4월부터 각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학교도서관 맞춤형 현장 지원 일환으로 일반 담당교사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길라잡이를 개발했다"면서 "앞으로도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자원봉사자 구성 활성화, 학교도서관 지원체계 구축 등 학교도서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호원대, 2024학년도 스포츠단 출정식

### 7개 종목 총 170명 선수 등 참여... '앞서가는 체육대학 발전'

호원대학교(강희성 총장)는 27일 문화체육관에서 2024학년도 스포츠단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정식에는 강희성 총장 및 군산시 김영일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이종석 사무처장을 비롯해 호원대학교 스포츠단의 7개 종목 총 170명의 선수와 종별 지도자, 내·외빈 등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출정식을 축하했다.

출정식에서 학생 선수대표로 축구선수단 최희도 선수와, 펜싱선수단 최예원 선수, 지도자 대표로 펜싱선수단 안누리 코치가 선선했다.

특히 호원대학교 스포츠단 선수들은 전국체전 등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2023년도 기준 9년 연속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에 선정돼 해당 기간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강희성 총장은 "우리 대학 스포츠단



은 우수한 성적을 통해 이제는 전국 어느 대학보다 앞서가는 체육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올 한 해도 부상과 안전에 유의해 선수를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호원대학교는 1990년도에 우수부를 창단한 시작으로 2003년 야구선수단, 2004년 축구선수단, 2005년 태권도선수단을 창단하고, 이어 2013년도 펜싱선수단, 2018년도 씨름선수단, 2022년 복싱 선수단을 창단해 총 7개 종목의 선수단을 이끌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26일 스타센터 은누리홀에서 2024학년도 1학기 중국·베트남에서 온 교환학생 환영식을 진행했다.

## 전주대, 중국·베트남 교환학생 환영식

###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 위한 학문·언어·문화교류 진행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6일 스타센터 은누리홀에서 2024학년도 1학기 중국·베트남에서 온 교환학생 환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베트남과 중국의 우수대학에서 대부분 영어트랙에서 수학하기 위해 온 우수한 학생들로 전공 수업 및 지역사회 연계 동아리 프로그램, 문화 체험 등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허베이대학교 GAO YING(영어영문학과) 학생은 "전주대학교는 전통과 문화의 중심 대학으로 호텔식 기숙사인 스타타워와 지역의 최고 수준의 도서관을 갖추고 있어 유학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지난 학기

교환학생으로 다녀갔던 친구들이 교수님들의 따뜻한 관심, 배움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담을 소개해 줬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영국(호텔경영학과 교수) 국제교류원은 "지난 학기 중국 허베이대학교 교환학생들이 매우 우수할 뿐 아니라 영어 실력과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았다"며 "이번에 입학한 교환학생은 대부분 영어트랙 과정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최상위 대학의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학생들은 100% 영어강의를 제공하는 영어트랙 학과에서 수학하게 된다"며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되며, 석·박사로 입학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